

# 전국 17개 시·도지사 한자리에

### 文대통령, 민선7기 첫 간담회 지자체별 일자리 방안 논의 오늘 청와대서 생계계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민선 7기 시·도지사들과의 첫 번째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여 만에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2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자 했으나 태풍 '솔리' 북상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간담회와 차별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하는 형태로 진행됐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콘셉트에 맞게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7개 시도에서 마련한 각각의 일자리 구상안을 먼저 보고받는다. 이어 중앙정부 입장에서 각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돌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사이에서는 주요 의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의 회의체가 아닌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생계계로 진행된다. /뉴스

# “의료인 폭행 최고 무기징역”

### 김광수 ‘안전 보장법’ 발의 응급의료법 위반 5년내 3배 ↑



·이승·응급처치 또는 치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 의료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의료법)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법을 방해하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시 갑·사진)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법을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법을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법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정치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선거제도 개혁, 제2의 촛불로 힘 달라”

### 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협약

민주당(대표 정동영)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 완수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공동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위한 공동협약문을 체결했다.

민주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화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진성 기자

다. 정동영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데, 국회의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선봉에 설테니 국회 밖에서는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배경내·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운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진욱 전대 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 환경 환리원의 생생 목소리 듣다

### 행자위 국주영은 위원장 30명과 오찬간담회 실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 제9선거구·사진) 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청과 도의회 환경관리원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 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도청과 도의회 청사 안팎에서 묵묵히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원 30명이 참석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그 동안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 늘 보



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청사 관리에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가 있

었기에 민원인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주영은 위원장은 간접고용 현업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예산 따내

### 이용호 의원, 국비 285억 확보



강화사업 1.7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산내면 달궁마을은 산림청 산림지역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산림휴양치유마을에 선정돼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예산 2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지역별 예산은 남원 82억 원, 임실 68억 원, 순창 135억 원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기초생활 수준 향상, 지역 내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남원은 산내면과 아영면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각 28억 원, 효기, 송내, 수월, 서당, 부석, 서정마을에 마을만들기 종합·자율개발사업 각 3.5억 원, 남원시 시군역량

받는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지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